

2009년 7월 고용동향 주요특징

2009. 8. 17

노동부
(고용정책실)

I. 7월 고용동향 개요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전년동월대비 2.8%)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6월 4천명 →7월 -76천명)

- 희망근로프로젝트 영향으로 6월에는 증가로 돌아섰었으나 7월은 다시 감소(전년동월대비 -76천명, -0.3%)
 - 임시직 증가폭의 둔화(6월 149천명→7월 92천명), 일용직 감소폭의 급격한 확대(6월 -99천명→7월 -195천명)로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급감하면서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

◆ 취업자 감소사유

- 청년층의 감소폭(6월 -71천명→7월 -112천명)확대, 60세이상의 증가폭 둔화(6월 131천명→7월 87천명)
- 남성(특히, 30~40대)의 고용사정 악화(6월 -68천명→7월 -137천명)
- 6월에 급증하였던 임시직의 증가폭이 7월에 둔화, 일용직은 건설업(6월 -25천명→7월 -62천명) 취업자의 감소폭 확대

-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면서 고용률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다시 확대됨(5월 -1.2%→6월 -0.7%→7월 -0.9%)

□ 실업자는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0%이상 증가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6%(159천명)증가하여 3개월 연속 20%대의 증가율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6월은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전년동월대비 2.0%(297천명) 증가에 그쳤으나 7월은 2.8%(420천명)로 급등
 - '쉬었음'인구가 급증(6월 59천명→7월 122천명), 대체로 60세 이상이 주도하던 비경활인구 증가세가 '09.6월부터는 30~40대의 기여도가 급증(5월 31.3%→6월 40%→7월 40%)

<참조>

7월 고용지표 및 취업자 동향

□ 7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p

	'08년		'09년				
		7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	24,347 (0.5)	24,673 (0.5)	24,456 (-0.2)	24,658 (-0.1)	24,927 (0.8)	24,756 (0.3)	
· 경제활동참가율	61.5 [-0.3]	62.3 [-0.3]	61.2 [-0.8]	61.6 [-0.8]	62.2 [-0.3]	61.7 [-0.6]	
취업자	23,577 (0.6)	23,903 (0.6)	23,524 (-0.8)	23,720 (-0.9)	23,967 (0.0)	23,828 (-0.3)	
	[145]	[153]	[-188]	[-219]	[4]	[-76]	
실업자	769 (-1.7)	769 (-3.2)	933 (18.9)	938 (24.5)	960 (25.6)	928 (20.6)	
실업률	3.2 [0.0]	3.1 [-0.1]	3.8 [0.6]	3.8 [0.8]	3.9 [0.8]	3.7 [0.6]	
고용률	59.5 [-0.3]	60.3 [-0.3]	58.8 [-1.2]	59.3 [-1.2]	59.8 [-0.7]	59.4 [-0.9]	
비경제활동인구	15,251 (2.0)	14,949 (2.0)	15,521 (3.4)	15,369 (3.5)	15,151 (2.0)	15,369 (2.8)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 7월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08.7		2009.6				2009.7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구성비	증감	증감률		
										구성비
< 전체 >	23,903	100.0	23,967	100.0	4	0.0	23,828	100.0	-76	-0.3
○ 임금근로자	16,363	68.5	16,736	69.8	351	2.1	16,589	69.6	226	1.4
- 상용근로자	9,054	37.9	9,340	39.0	301	3.3	9,383	39.4	329	3.6
- 임시근로자	5,163	21.6	5,281	22.0	149	2.9	5,255	22.1	92	1.8
- 일용근로자	2,146	9.0	2,115	8.8	-99	-4.5	1,952	8.2	-195	-9.1
○ 비임금근로자	7,540	31.5	7,231	30.2	-347	-4.6	7,239	30.4	-302	-4.0
- 자영업주	6,062	25.4	5,806	24.2	-287	-4.7	5,834	24.5	-229	-3.8
- 무급가족종사자	1,478	6.2	1,425	5.9	-60	-4.0	1,405	5.9	-73	-4.9

II. 7월 고용동향의 주요특징

1. 긍정적 징후와 부정적 징후의 혼재

-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한 단시간 근로 (주당 36시간 미만)한 자는 2개월 연속 100만명 미만(5월 1,018천명 →6월 953천명→7월 891천명)

<경제적 사유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의 추이>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09.1	2	3	4	5	6	7
1,153 (257)	1,198 (275)	1,102 (232)	1,054 (242)	1,018 (233)	953 (183)	891 (94)

- 반면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제외한 비공공 전 산업 임금근로자의 경우 6월에는 83천명 증가 했으나 7월에는 92천명 감소

- 특히 비공공 전산업의 경우 임시직 감소폭이 급등(6월 -133천명→7월 232천명)하고, 자영업자도 감소폭이 4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어섬

<중사상 지위별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08												'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전체	235	210	184	191	181	147	153	159	112	97	78	-12	-103	-142	-195	-188	-219	4	-78
임금근로자	376	297	282	294	310	251	238	221	166	167	159	86	21	117	82	95	79	351	226
(공공제외)	334	253	214	246	237	173	175	165	156	133	146	80	18	88	13	24	-10	63	-92
상용	433	405	466	443	478	423	381	344	318	313	318	318	287	390	276	333	306	301	329
임시	-60	-70	-165	-109	-94	-85	-91	-74	-85	-85	-103	-94	-134	-182	-83	-76	-89	149	92
(공공제외)	-65	-72	-163	-114	-106	-97	-96	-73	-78	-96	-104	-96	-138	-224	-147	-142	-154	-133	-232
일용	3	-38	-39	-40	-73	-76	-53	-48	-68	-61	-56	-138	-130	-81	-112	-162	-138	-99	-195
(공공제외)	15	-28	-27	-20	-75	-91	-65	-56	-68	-77	-65	-140	-133	-84	-116	-174	-153	-91	-181
비임금근로자	-141	-87	-79	-103	-129	-114	-83	-62	-54	-70	-81	-97	-123	-259	-277	-262	-258	-347	-302
고용주	-56	-23	-35	0	25	-34	-46	-42	-44	-71	-64	-34	-25	-80	-34	-45	-55	2	24
자영업자	-60	-11	-31	-42	-83	-67	-37	-47	-12	-39	-19	-59	-87	-176	-188	-224	-245	-260	-252
무급	-5	-53	-12	-61	-72	-13	-1	28	3	41	2	-5	-12	-4	-54	-13	3	-60	-73

2. '청년층 대졸자'의 취업여건 악화

- 각 년도 대졸자들이 졸업한 년도 7월 취업자 비중은 점차 축소('07년 66.5%→'08년 63.7%→'09년 61.8%)되는 반면, 비경활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7년 25.8%→'08년 25.5%→'09년 27.3%)
- 여성 취업자 비중은 '07년 졸업자 46.3%에서 '09년 졸업자 59.4%까지 상승
 - ※ 반면,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급감('07년 졸업자 64.3%→'08년 졸업자 56.5%→'09년 졸업자 50.9%)하는 추세
- 동 기간 '쉬었음'인구는 '07년 졸업자 3.1%→'09년 졸업자 4.3%, '구직단념자'는 '07년 졸업자 0.8%→'09년 졸업자 2.7%로 상승

<청년층 대졸자 경제활동 상태>

단위 : 천명, %

	'06.7('05년 졸업자)	'06.7('06년 졸업자)	'07.7('07년 졸업자)	'08.7('08년 졸업자)	'09.7('09년 졸업자)
취업자	275 (66.6)	273 (66.2)	282 (66.5)	254 (63.7)	262 (61.8)
남성	118 (43.1)	123 (44.9)	152 (53.7)	115 (45.3)	106 (40.6)
여성	156 (56.9)	150 (55.1)	131 (46.3)	139 (54.7)	155 (59.4)
실업자	45 (10.8)	42 (10.3)	33 (7.7)	43 (10.8)	46 (10.9)
비경활인구	93 (22.6)	97 (23.5)	110 (25.8)	102 (25.5)	115 (27.3)

주 : 1) 해당 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출

2) ()는 전체 해당 년도 대졸자 중 취업자 비중

-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09년 졸업자의 경우 급격히 축소('07년 졸업자 62.9%→'08년 졸업자 60.4%→'09년 졸업자 51.7%)

<청년층 임금근로자 동향>

단위 : 천명, %

	'06.7('05년 졸업자)	'06.7('06년 졸업자)	'07.7('07년 졸업자)	'08.7('08년 졸업자)	'09.7('09년 졸업자)
임금근로자	261 (100.0)	265 (100.0)	271 (100.0)	247 (100.0)	253 (100.0)
상용	160 (58.4)	154 (56.5)	177 (62.9)	153 (60.4)	135 (51.7)
임시·일용	101 (36.7)	111 (40.7)	93 (33.0)	93 (36.8)	118 (44.9)

주 : 1) 해당 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출

2) ()는 전체 해당 년도 대졸자 중 취업자 비중

3. 비자발적 실직자 동향

- 6월 비자발적 실직자의 이직 사유 중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가 43.6%(156천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로 비자발적 실직한 자는 6월 107천명(43.3%)→7월 156천명(43.6%)로 증가
-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비자발적 실직한 자는 6월 76천명(30.8%)→7월 126천명(35.2%)로 증가
 - ※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6월 14천명→7월 60천명)',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6월 17천명→7월 57천명)'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급증

<비자발적 실직자의 이직사유별 동향>

단위 : 천명

	'09.1월 이직자	'09.2월 이직자	'09.3월 이직자	'09.4월 이직자	'09.5월 이직자	'09.6월 이직자
총계	338 (53)	300 (121)	218 (67)	216 (25)	247 (48)	358 (139)
직장의 휴업, 폐업	33 (15)	38 (21)	25 (11)	23 (9)	27 (2)	21 (-2)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44 (24)	37 (17)	40 (27)	25 (6)	28 (14)	36 (11)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139 (20)	130 (60)	102 (27)	106 (12)	107 (14)	156 (60)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11 (-5)	81 (18)	46 (6)	55 (2)	76 (17)	126 (57)
기타	12 (-1)	15 (4)	6 (-5)	8 (-5)	8 (1)	19 (13)

주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